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.cdi.re.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충남리포트 제136호

ChungNam Report

2014. 11. 06

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

이민정

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, minjoung1006@cdi.re.kr

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함의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.

CONTENTS

< 요 약 >
1. 도시에서의 내발적 발전
2. 일본의 도시형 사례소개
①이와테현: 중소기업 네트워크
②카가와현 타카마츠시: 전통시장과 원도심 재생
③니가타현 무라카미시: 소도시형 관광
3. 충남에 대한 시사점

요 약

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탱하는 것은 지역기업, 특히 그 중심에는 제조업 기업과 활발한 3차산업이 있음.

● 도시형 내발적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2차산업 발전이 '성장견인지역'을 이끈다면, 3차산업 발전은 '살기좋은 지역', '살고싶은 지역'과 연결된다는데 있음.

● 지방도시에서 보이는 내발적 발전의 5가지 공식을 나카무라(中村剛治郎)는 다음과 같이 정리함.

①리더(혁신가)와 추종자의 역할

②지역의 조건에 맞는 창의성과 지역 핵심산업의 전략적 진흥

③지역내 산업연관적 발전

④지역기업 주체의 독자적 산지기구(産地機構)의 조직화, 자율적 지역경제 형성

⑤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전체로 퍼지는 느린 성장의 성과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중시

● 이와테현의 사례 : '뿌리산업' 관련기업 집적을 통한 '기업하기 좋은 지역' 조성 경위, 대기업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발생한 퇴직자를 지자체가 제도·시설정비를 통해 '창업하기 쉬운 지역' 조성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음.

● 타카마츠市 상점가 사례 : 정기차지권을 활용해 '상인위주' 상점가에서 '소비자시선에 맞춘' 상점가만들기의 노하우,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가치상승을 통해 컴팩트 씨티 정책,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.

● 무라카미市 사례 : '외지인 시선'에서 보면 일상적인 것이 관광자원이 되고 이를 활용해 마을전체를 '전시장'화, 기금 모집 등을 통해 주민·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.

CDI 충남발전연구원

01 도시에서의 내발적 발전

◉ 일본에서도 지방은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고, 대기업 분공장의 입지로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제조업도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.

◉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탱하는 것은 지역기업, 특히 그 중심에는 지역의 제조업을 담당하는 기업과 활발한 3차산업이 있음.

– 점점 위축되어 가는 지역 제조업에 지방의 대학, 전문고등학교, 연구기관이 갖는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고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음.

◉ 지방도시에서 보이는 내발적 발전의 5가지 공식 – 나카무라(中村剛治郎)는 일본의 카나자와市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.

① 리더(혁신가)와 추종자의 역할
② 지역의 조건에 맞는 창의성과 지역 핵심산업의 전략적 진흥
③ 지역내 산업연관적 발전
④ 지역기업 주체의 독자적 산지기구(産地機構)의 조직화, 자율적 지역경제 형성
⑤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전체로 퍼지는 느린 성장의 성과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중시

◉ 이 글에서는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.

<그림 1> 도시형 내발적 발전 지역 및 사례

일본의 도시형 사례소개 02

1) 이와테현 : 중소기업 네트워크

<사진 1> 이와테현: 이와테 네트워크 서비스(INS)

출처) 구글이미지

◉ 동 지역은 도쿄에서 멀기도 하지만 가공산업(‘뿌리산업’) 관련기업이 없어 대기업 제조업들이 진출을 꺼림.

- “뿌리산업 관련기업이 없으면 유치하면 된다”는 한 공무원의 역발상으로, 수도권에 있는 뿌리산업 공장을 운영하는 이와테 출신 공장주와 접촉하며 진출 설득.
- 뿌리산업 집적은 대기업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어 분공장을 진출시키기 시작.

◉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대기업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지역의 고용감소가 거듭됨.

- 대부분 농가의 장남이었던 직원들은 해외이전을 기피해 퇴직자가 속출
- 한 시청공무원은 이들이 스핀오프(Spin-off)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자고 제안.
- 지자체가 유휴공장을 빌려 ‘창업지원센터’를 운영, 공동실험·측정장비실, 연구실 등을 대여, 10년 경과 시점에서 23개사가 ‘졸업생 기업’으로 자립.

◉ 이러한 흐름 속에 이와테대학 공학부 교수의 주도로 '이와테 네트워크 서비스(INS)' 조직

- 2011년 현재 회원 1,131명, 46개 연구회, 18개 벤처기업 탄생
- 주요활동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식습득·보급, 공동연구그룹 육성, 교류 등.
- 2003년 산학관 연계공로자 표창, 2012년 지역산업 산업지원프로그램 수상 등으로 활동을 인정받았고 전국 각지에 ‘○○INS'가 탄생

◉ INS는 '자유'와 '지속성'이라는 2개 축으로 운영됨

- 기업단위 입회가 아닌 개인단위 입회로 회원 간 평등한 관계유지. 경직화·형식화 방지
- 대학주도 조직이므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없이 지속가능
- 자유롭고, 조직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INS의 저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.
  ① 산학횡단적 상호교류기회의 중요성과 비형식적 지원조직의 존재
  ②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개인간 교류
  ③ 산업계-행정-대학 3자에게 명확한 인센티브가 존재
  ④ 퍼블릭 앙트레프레너(창업가적 발상을 하는 공무원)와 아카데믹 앙트레프레너(창업가적 발상을 하는 대학연구자)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확보

◉ INS의 격식없는 분위기를 "맨날 술마시고 떠드는(いつも飲んで騒ぐ[Itsumo Nonde Sawagu]) 모임"이라고 농담하던 회원들은 이제 "언젠가 노벨상을 휩쓸(いつかノーベル賞をさらう[Itsuka Nobelshowo Sarau]) 모임"이라는 목표와 자긍심 표현

2)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: 전통시장과 원도심 재생

◉ 일본은 경제고도성장과 함께 증가한 자동차 보유가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외연적 확산·원도심 공동화를 초래

- 1980년대부터 교외에 대형마트가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원도심과 상점가가 급속히 쇠퇴
- 상점가 상인들/소유권자들의 "내 땅이고 내 가게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"는 고집은 매력없는 점포구성으로 이어져 '소비자 위주'가 아닌 '상인 위주'로 상점가가 운영됨.

<사진 2> 카가와현 타카마츠시

출처) 구글이미지(좌, 우) 및 필자 직접촬영(가운데)

◉ 타카마츠市는 인구 42만명의 도청 소재지이자 시코쿠(四國)지역의 대표도시

- 중앙정부 파견기관(出先機關)과 대기업의 지사가 집중된 "지점경제도시"로 상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.
- 카가와 현은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이나 일본 최장 아케이드(2.7km)를 자랑하는 상점가가 입지. 상업도시로서의 이 지역의 위상을 보여줌.

– 본고에서 다루는 마루가메마치 상점가는 중심상점가 전체매출의 30%를 점하는 대표상점가

◉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활동을 통해 위기 극복

– 자동차중심생활의 도래에 대비해 1970년대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. 수익금은 상인회 자체 재원화.

– 1980년대 초반부터 자체연구회에서 앙케이트를 실시, 동 상점가가 나아갈 기본방향 수립

– 1988년 '400년 축제' 때 청년회를 중심으로 재개발위원회, 전문가그룹 발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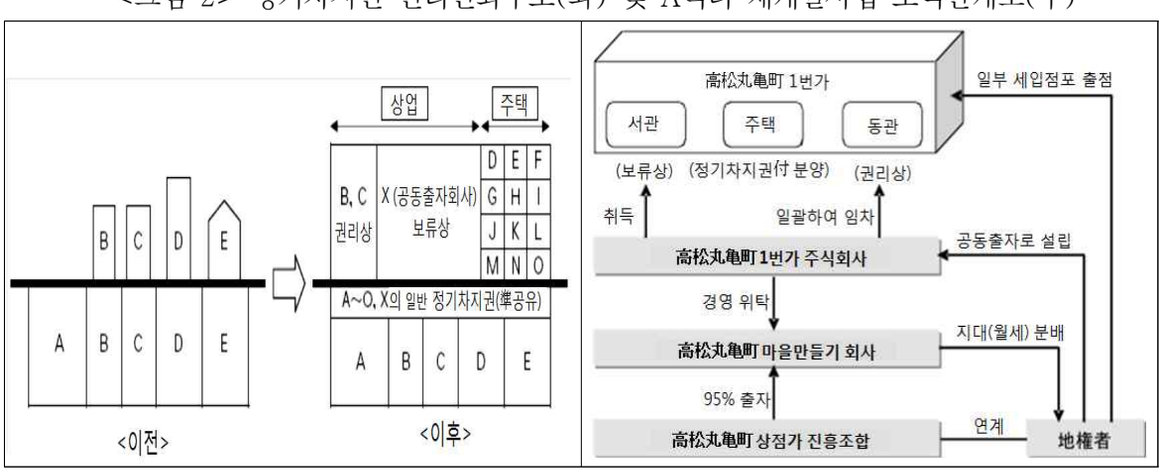
◉ 전문가그룹의 조언을 통해 토지소유와 건물사용을 분리하는 '정기차지권(定期借地權)'을 이용한 상점가 재개발을 구상

– 상점가 전체 약 500m를 A~G섹터로 구획. 각 섹터는 각각의 디자인코드에 맞춰 재개발하여 상점가 전체가 하나의 쇼핑몰이 되는 이미지.

– 건물경영을 외부화하기 위해 설립한 '마을만들기 회사'는 각 섹터의 이미지에 맞는 테넌트 믹스(Tenant-mix, 머천다이징 정책 시행을 위한 최적의 조합 찾기)가 가능

– 지권자(地權者)가 받는 월세가 매출과 연동되는 '지권자 변동월세제도'를 도입하여 지권자와 입점점포의 협력, 나아가 마을만들기회사-입점점포-지권자 3자간의 협력을 꾀함.

<그림 2> 정기차지권 권리변화구조(좌) 및 A섹터 재개발사업 조직관계도(우)



출처) 이민정(2011)

◉ 스마트 성장(Smart Growth)을 논하던 시대에서 스마트 축소(Smart Decline)를 고민해야 한다는 컨센서스 형성

– 지금 당장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도시계획구역 증가·용적률 인상이 인구감소 시대에는 큰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변할 위험성.

–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도심의 건평률 향상,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적 가치상승을 꾀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.

3) 니가타현 무라카미시: 소도시형 관광

◉ 니가타현 최북단에 위치한 동지역은 인구 7만여명의 도농형 도시임.

- 에도시대 번(藩)이 있던 성주마을(城下町)로 역사적 유적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인식되지 못했고, 1990년대 후반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원도심 근대화계획이 논의됨.
-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근대화계획 때문에,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자산이 많이 소실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음.

◉ "도로확장으로 활성화한 상점가는 어디에도 없지만, 역사가 있는 마을풍경과 전통을 살려 성공한 예는 전국적으로 많다"

- 지역리더 킷카와 씨는 무라카미의 '역사가 깃든 것'을 찾으려 했으나 눈에 보이는 건 단지 '낡고 오래된 것'뿐이었음. 어느날, 타지에서 온 손님이 가게 건축양식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음.
- 1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킷카와 씨의 가게는 전형적인 무라카미 마치야(町屋:전통가옥) 형태.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의 마치야는 주민들에게는 춥고 살기 불편한 옛날집일 뿐이었음.
- '외지인'의 눈으로 마치야의 '내부'를 보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.

◉ 1998년 여름, 상인회를 조직하여 14점포가 '마치야 공개'를 시작. 70개 점포까지 확대

- 2000년 3~4월부터 집집마다 전해오는 히나인형[1] 4천점을 점포입구에서 공개하는 '마치야 히나인형 순례' 시작
- 2001년 9월부터 같은 형식으로 전통병풍을 전시하는 '마치야 병풍축제' 개최
- 3월/9월의 축제로 매년 관광객 20만명 방문.

<사진 3>히나인형 순례, 병풍축제, 대나무 등롱축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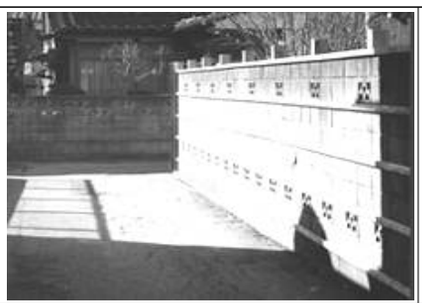
출처) 구글이미지

1) 여자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히나마츠리(3월 3일)까지 각 가정에서 장식하는 인형.

◉ ‘우리마을은 우리 주민의 힘으로 재생시키자’라고 주민들을 움직여 2002년부터는 ‘흑벽(黑壁) 프로젝트’ 발족

- 원도심의 한쪽 거리에 성주마을 특유의 정서가 깃든 흑벽이 있었으나 시멘트벽돌 벽으로 바뀌어 있었음. 시멘트벽돌 벽위에 나무판을 덧대 검게 칠하는 간단한 방식 고안. ‘흑벽 1장 1000엔 운동’ 동시진행
- 다른 프로젝트로 ‘녹색3배 계획’ 추진과 동시에 ‘녹색 1구좌 1000엔 운동’ 진행
- 2004년부터 ‘무라카미 마치야 재생프로젝트’ 발족.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1구좌 당 3천엔 기금적립. 건물외관을 마치야 방식으로 재생. 2011년까지 20호 재생.

<사진 4> 각종 프로젝트 성과

흑벽 프로젝트		▶	
녹색 3배계획		▶	
마치야 재생 프로젝트		▶	

출처) 구글이미지

◉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이 하나의 큰 ‘전시장’이 되고 프로젝트가 계속 태어남.

- 마치야(점)→ 히나인형/병풍 순례(선, 기간 다양화)→ 프로젝트(선, 거점 다양화)으로 발전
- 프로젝트끼리 어울리면서 시너지효과를 낳음 (ex. 흑벽 프로젝트 + 대나무 등롱축제 = 저녁에 몽환적 분위기 연출.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)
- 주민은 애향심 고취, 관광객은 ‘무라카미 팬’이 되어 기금참여, 재방문률 높아짐.

03 ▶ 충남에 대한 시사점

◉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우, 2차산업이 중심인 '공업도시'의 이미지가 짙음.

- 이는 상대적으로 3차산업이 정비된 인근지역(경기도, 대전)에 거주하면서 충남으로 일하러 오는 통근비율이 높다는 것에도 알 수 있음.
- 도시형 내발적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2차산업이 발전이 '성장견인지역'을 이끈다면, 3차산업의 발전은 지역을 활기있게 하여 매력력인 지역으로 만들어 '살기 좋은 지역', '살고 싶은 지역'과 연결된다는데 있음.
- 이·수출형 산업[2]의 성장만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다양한 3차산업의 발전이야말로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'살기 좋은 지역'을 만드는 데 연결됨.
- 2차산업을 담당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창업이 많아진다 하더라도, 이들이 충남에 살면서 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. 충남을 '일하는 지역'의 이미지에서 '살기 좋은 지역'의 이미지로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.
- 특히, 의료·복지·교육·문화·환경 분야의 서비스산업과 관련 제조업의 발전을 지역에서 일으켜가는 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결되는 의미를 넘어, 그것이 향후 비중을 높여갈 성장산업분야인 만큼 주력해야 함.

▶ 중소기업 네트워크(IN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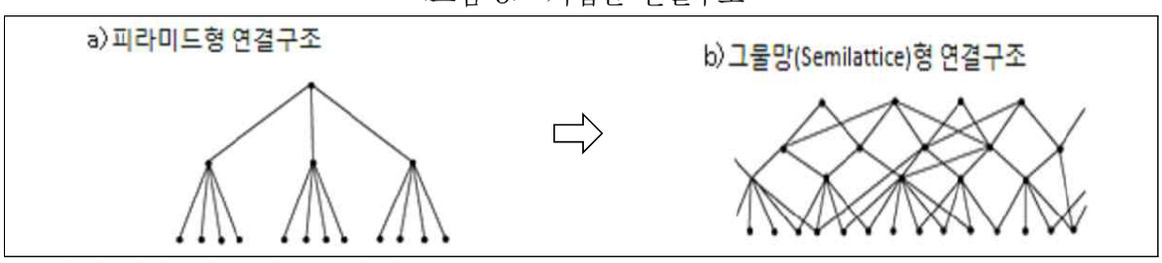
- '뿌리산업'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대기업에게 '기업하고 싶은 지역' 조성
- 대기업 공장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퇴직자들에게 지자체에서 스핀오프 가능한 시설·제도를 마련하여 '창업하기 쉬운 지역' 조성
- INS는 개인단위 입회의 자유로운 분위기, 이와테대학의 지속성 담보 등의 제도적 조건을 통해 혁신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매우 양호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. 이는 양질의 사회적 자본(Social Capital)이 되어, 기존기업의 신규분야 진출과 신규기업(Start-ups)을 지탱

2) 이출(타지역으로 상품 등을 판매), 수출(타국으로 상품 등을 판매)

– 기업내 완결구조로 이뤄지는 한국 기업의 특성상, 발주-수주기업 간 관계는 <그림 3>(a)가 일반적임. 수주기업이 발주기업에게 받는 지원은 납품과 연결되는 정보제공과 기술지원이 대부분.

– 글로벌경쟁 하에서 공급업체로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에 납품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해야 함. (그림 3 (b)구조)

<그림 3> 기업간 연결구조



출처) 나카무라 코지로, 오다 히로노부(2014)

–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하여 대기업에게 협력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조 노력만으로는 어려움.

– 양자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도록 매개한 것이 기업횡단적 산학관 네트워크의 존재이며, 이에 대한 힌트를 INS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음.

▶ 전통시장과 원도심 재생

– 정기차지권을 활용하여 '토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'를 실현하고 마을만들기 회사가 토지취득·경영을 맡아 전대(轉貸)를 통해 테넌트 믹스(Tenant-mix)를 실현.

– '상인 위주'가 아닌 '소비자 시선'에 맞춘 상점가만들기 추진

– 원도심과 전통시장이 본래 갖고 있는 인프라에 더해, 현재 가치절하되어 있는 부동산 가치를 리노베이션을 통해 끌어올림.

▶ 소도시형 관광

– 주변에 일상적으로 산재해있던 것들의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이끌어냄.

– 마을 전체의 '전시장'화. '점→선→면'으로 계속적인 프로젝트 발생.

– 주민주도적 역사적 자산 발굴과 마을풍경 재생,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모금

–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는 '관광인프라'라는 것이 지혜를 모으면 거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정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줌

◉ 나아가, 수출산업의 성장만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다양한 3차 산업의 발전이야말로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'살기좋은 지역'을 만드는데 연결됨.

– 의료·복지·교육·문화·환경 분야의 서비스산업 등은 지금은 공공서비스 분야로 간주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분야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분야로, 주민의 참여·협력, 지역행정, 지역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활동을 통해 내발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

– 일본에서는 상점가와 연계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.

이 민 정 초빙책임연구원
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
041-840-1172, minjoung1006@cdi.re.kr

※ 본 연구는 '일본의 내발적 지역발전 사례와 충남의 발전정책(이민정, 2014,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)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.

◆ 참 고 자 료 ◆

나카무라 코지로, 오다 히로노부(2014), '글로벌 경제위기시대의 자율적 지역경제구축을 위하여', 「정책동향분석」 2014년5월호, 충남발전연구원.

李玟靜(2011), 「日本商店街の再生と地域的商業システムの再編：韓国・伝統市場再生研究の課題と方法を求めて」, 横浜国立大学 博士論文.

中小企業庁(2006), 「がんばる商店街７７選」

国土交通省(www.milt.go.jp) '住民が共に育てる観光まちづくり事例'

岩手県 INS(www.ins.ccrd.iwate-u.ac.jp)

高松市 丸亀町商店街(www.kame3.jp)

村上市 黒壁(www.kurokabe.co.jp)

2014년도 충남리포트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4-01	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	정옥식	2014.01.01
2014-02	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	이충훈	2014.01.09
2014-03	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	송두범	2014.01.21
2014-04	이제!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	이상진	2014.01.27
2014-05	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,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	이민정	2014.01.28
2014-06	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 대책, 예방이 최우선이다!	정옥식	2014.02.11
2014-07	지원·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	이인배	2014.02.13
2014-08	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	김양중	2014.02.20
2014-09	사라지는 농촌마을! 한계(限界)마을정책 도입해야	조영재	2014.02.25
2014-10	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	김양중	2014.02.28
2014-11	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	이관률·정현희	2014.03.06
2014-12	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4.03.13
2014-13	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	김원철	2014.03.27
2014-14	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	최병학	2014.04.03
2014-15	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	고승희	2014.04.16
2014-16	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	정옥식	2014.05.08
2014-17	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	임준홍·홍성효	2014.05.15
2014-18	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·협력 추진 방안	오명택·김정연	2014.06.12
2014-19	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	김양중	2014.06.19
2014-20	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	송두범	2014.06.24
2014-21	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	이수철	2014.07.14
2014-22	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	이호중	2014.07.16
2014-23	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·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	이정만·고승희	2014.07.17
2014-24	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	최은희	2014.07.21
2014-25	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	김양중	2014.07.23
2014-26	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	장종익	2014.07.28
2014-27	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	주운현	2014.07.30
2014-28	충남 정책 키워드(3농혁신, 사회적경제)의 SNS 데이터 분석	임화진	2014.07.31
2014-29	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	유병덕·최영화	2014.08.05
2014-30	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	김양중	2014.08.07
2014-31	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	박철희	2014.08.11
2014-32	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	김잔규 외	2014.08.21
2014-33	지방 3.0 시대,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	정창수	2014.09.11
2014-34	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	김순은	2014.09.16
2014-35	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	박 경	2014.09.18
2014-36	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	김홍기	2014.09.23
2014-37	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	김용현	2014.09.25
2014-38	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	변창흠	2014.09.30
2014-39	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	안성호·곽현근	2014.10.02
2014-40	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	이상헌 외	2014.10.08
2014-41	충남의 산업단지,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	이충훈	2014.10.16
2014-42	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(河北省)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	박경철	2014.10.17
2014-43	농촌의 에너지자립,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: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	박춘섭	2014.10.30

▣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▣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